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5회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수기 공모전

수상작 소개



서울대학교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목 차

심 사 평 심사위원장 손유경 교수 05

수상소감 최우수상 수상자 이기주 09

수상작 소개

최우수상 저는 택시 운전사입니다 13

우 수 상 당신의 형편은 어떤가요? 19

서울대학교의 거인들 25

장 려 상 나태의 끝에서 31

가장은 항상 아쉬울 수밖에 없다 37

21세기의 패러데이 41

미래의 동료가 될 후배들에게 보내는 편지 45

또 하나의 열매를 기다리며 49

제5회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수기 공모전
수상작 소개

심 사 평

심사평

손유경 교수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몇몇 연예인들의 선행이 대중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친숙해진 지 오래다. 기부의 개념과 범위도 확장되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가진 전문적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재능 기부’에 대한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이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재능을 기부하는 일반인이든, 여기서 우리가 공통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강렬한 전파력에 있다. 선행의 시작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몰고 오는 감동과 결실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는 아무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나눔은 어떤 경계에 머물지 않으며 그 자체로 불가사의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장학금 수기’라는 장르의 글들이 주는 특별한 울림은 바로 이런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한다는 데서 나오는 듯하다.

제 5회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수기 공모전 응모작들이 한결같이 다루는 내용도 선한 영향력에 관한 것이었다. 심사는 바로 이런 공통의 주제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지를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항목별 채점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현성(얼마나 효과적으로 글을 구성하고 표현하였는지), 독창성(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진부한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잘 드러나는 참신한 내용인지), 진정성(실제의 체험과 체험을 통한 사고가 얼마나 깊이 있게 나타나 있는지), 주제적합성(‘장학금 수기공모’라는 주제에 얼마나 적합한 글인지) 등이

그것이다. ‘수기’라는 장르의 호소력은 체험의 진정성과 표현의 독창성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심사위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최종 당선작을 결정하였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수기 공모전은 올해로 제 5회를 맞이했다. 심사위원들 간의 큰 이견 없이 당선작을 내게 되어 기쁘다. 총 38편의 응모작 중 학생 부문에서 8편, 일반 부문에서 8편, 그리고 기타 부문에서 1편을 각각 1차로 선정한 후, 이를 5명의 심사위원이 각각 채점하여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을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은 일반 부문의 이기주 씨, 우수상은 학생 부문의 경영학과 이민지 씨와 재료공학부의 안응규 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기주 씨의 글 <저는 택시운전사입니다>는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만만한 기부’가 이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고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가를 매우 실감 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글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낸 이민지 씨와, 서울대학교의 여러 기부자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서울대의 거인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전한 안응규 씨에게도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학생 부문 장려상은, 장학금을 방황의 끝에서 만난 마지막 이정표라고 밝힌 수의학과 학생 고병기 씨와 가난을 귀중한 수업이라 생각하며 약착같이 더 노력하리라 다짐한 수의학과 김건 씨, 그리고 기부자와의 만남을 추억하며 마음을 다잡아 보겠다고 한 전기정보공학부 학생 김종찬 씨에게 돌아갔다. 일반 부문에서는 자신의 체험을 진솔하게 그려내면서 선한 영향력의 진짜 모습을 알려준 이진규 씨와 스스로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한 이진영 씨가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응모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수기 공모전이 앞으로 학교 안팎에서 여러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이 지속되고 확산되는 데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제5회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수기 공모전
수상작 소개

수 상 소 감

수상소감

이 기 주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학부모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범대 윤리교육과 21학번 재학 중인 이용우 학생의 아버지이기주입니다. 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해주신 총장님 이하 서울대발전기금 및 대학신문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아들에게 고맙고 그런 아들을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아내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해 주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든 즐겁고 재미있게 하자는 생각과 여기에서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는 생활 습관이 오늘의 저입니다. ‘힘들 때 마다 생각나는 것은 가족이다’라는 생각에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수기를 쓴 것인데 너무 높은 평가를 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택시를 운행하다 보니 현금 결제를 하는 손님들이 100원짜리 잔돈이 발생할 때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팁 형식으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받고 말 것이 아니라 뭔가 뜻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의 학교 서울대발전기금에서 “만만한 기부” 라는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취치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적은 돈이지만 이 만만한 기부에 기부하는 것이 작지만 소소한 행복이라 생각하여 기부하게 되었고 그것을 소재로 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택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가족에게 느꼈던 “정”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의 소소한 이야기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에 출연되는 기부금이 서울대를 더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수상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22. 2. 28. 공모전 수상자 이기주

제5회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수기 공모전
수상작 소개

최우수상

최우수상

저는 택시 운전자입니다

이 기 주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학부모

저는 택시운전자 입니다.

영화 제목이 아닙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인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다니는 아버지입니다.

작은 돈이지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만만한 기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카드가 보편화 되어 있다 보니 택시 승객들이 요금을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고 또 앱으로 콜을 하는 것이 많아 미리 앱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로 택시 요금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고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현금 손님은 10% 내외입니다. 택시 요금은 특성상 100원짜리가 남게 됩니다. 요즘의 물가를 고려하면 100원 200원은 그리 큰 돈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손님들도 100원짜리가 남는 요금이 발생하면 그냥 지폐를 주고 가시고 만원 짜리 주면서 “천원 짜리만 거슬러 주세요” 하는 손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잔돈을 월 어느 정도 나오나 궁금하여 몇 달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많은 돈은 아니고 월 만원 이하가 대부분이지만 가끔은 3만원 정도 나오는 달이 있기도 합니다. “이 잔돈에 대한 수입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써보면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아들의 학교에서 '만만한 기부'라 하여 “만원으로 만드는 나눔 레시피” 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기숙하는 학생, 집안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급식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자금으로 쓴다고 하기에 내가 내는 돈은 크지 않은 돈이지만 그 돈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잔돈의 팁으로 하는 기부이기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차를 타는 손님들이 하는 것이라 제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좀 많이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여 항상 부끄럽습니다.

저는 나이 52세때, 아들은 중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었는데 다니던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들은 고등학교를 어떤 곳으로 진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52세라는 나이는 어디서 많다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나이이지만 새롭게 직장을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 놓은 것이 있어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부동산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입은 좋지 않습니다. 5년여 전에도 부동산 거래는 활발하지 않았습니니다. 하루 종일 전화만 주고 받다 퇴근 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한달 두달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 하는 것은 수입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일정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월급 생활을 하던 때는 매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니 거기에 맞춰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일정하지 않은 수입은 한달 한달 많은 스트레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 고등학교도 보내야 하고 이후 대학교도 보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보면 가족들은 모두 굶어 죽고 아이의 미래도 불투명해질 것 같아, 나만 믿고 생활하는 가족들이 있어, 지금까지의 나는 잊어버리자, 내가 체면을 좀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여 택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법인 택사에서 일을 해야 하기에 하루 하루 사납금을 채우고 나면 내 손에 쥐는 수입은 많지 않았습니니다. “쉬는 시간을 좀 줄여서 많은 승객을

태워보자”라는 생각에 열심히 핸들을 돌렸습니다. 당시 아이의 어머니는 “좀 수입이 적더라고 부동산 사무실 같은 전문직으로 일을 해야 아들이 불안해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그렇게 호락 호락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수입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체면이 문제가 아니다, 아들에게는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설득해 보자” 하면서 택시 운전사의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들은 이 후에 기숙사 학교인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집에 오는 주말에는 독서실에서 홀로 공부하였습니다. 나를 걱정도 많이 했는데 잘 해 주었습니다. 2021학년도 입시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 한 아들이 고맙기만 합니다. 서울대에 합격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에 출석을 하지는 않지만 학교의 도서관도 수시로 이용하고 학교 점퍼, 학과 후드티 같은 것을 즐겨 입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머리속엔 기쁨이,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 집니다. 하루는 아들과 단둘이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운전사인 아버지가 창피하지 않니?”라고 물었더니 “아빠 무슨 소리 하세요 그런 생각 해 본 적 없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 하시는 아반데 왜 그런 생각을 해요”라고 아들은 이야기 했습니다. 물어본 나 자신이 창피해지고 오히려 나 자신이 나 자신에 대해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어 보아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나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 하는데 아들의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힘 내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아빠가 항상 자랑스러워요”라는 문자를 보고 그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차를 한쪽에 세워두고 실컷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학교 선생님에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윤리 도덕적으로 정말 잘 가르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너희들

공부 못하면 공사판에 가서 막노동 하면서 살아! 저기 길가에 봉어빵 파는 사람처럼 된다”라는 막말들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거야”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고마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이도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를 돕는 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 어렵지도 않은 일입니다. 앱 상에 들어가서 문자를 이용만해도 어려운 여학생에게 생리대를 기부하는 것도 있고, 전화 한 통으로 도움을 주고, 자선 냄비는 매년 12월이면 종이 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합니다. 그 곳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넣지는 않습니다. 그 곳에 기부자 누구라고 써 넣지도 않습니다. 잠시나마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싶은 것,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작은 티끌이 모여 태산을 이룬다는 것이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비록 만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태산을 이루고 이 이루어진 태산으로 인하여 많은 인재들이 끼니 걱정 하지 않고 학문에만 열중하여 사회로 나와 그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부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천 원짜리 로또 한 장도 일주일 동안 나에게 기쁨을 주지만 이 기부는 나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많은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작은 돈으로 나 자신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 입니까?

저는 오늘도 신나게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덜 먹고 덜 쉬면서 기부를 좀 더 늘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회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수기 공모전
수상작 소개

우수상

우수상

당신의 형편은 어떤가요?

이 민 지

경영대학 경영학과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의 형편은 어떻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은지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곧 11살이 되는 제 딸아이가 얼마 전 저에게 “엄마, 우리 집 형편은 어때?”라고 물었거든요. 저는 아이를 물끄러미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형편 좋아. 네가 원하는 것들을 대부분 할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주잖아. 다만 엄마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우리 둘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조금은 아껴보려고 노력하지. 미국은 물가가 한국보다 비싸거든.” 저는 아이가 왜 갑자기 그런 궁금증을 가졌는지 고민해보다가 이유를 생각해 냈습니다. 아이가 옆에 있을 때 가족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정부에서 받는 지원 이야기, 학교에서 받게 된 장학금 이야기 등을 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삼 아이가 참 많이 컸구나,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많이 해줘도 지원금과 장학금 이야기를 하면서 기뻐하는 나를 보며 내심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헛갈렸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나이로 저는 28살, 제 딸아이는 10살입니다. 아이가 낳기 전부터, 그리고 저희는 어딘가에서 도움을 받는, 지원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걸 ‘자리’라고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왔어요. 처음에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리되는 한부모가정의 양육수당부터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학비 전액 장학금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입학한 후부터는 더 많은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이, 어떨 때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름 모를 후원자가 기부한 돈이나 음식들이 저와 제 딸아이에게

계속해서 전해졌고, 그것들을 받을 때마다 나는 언제쯤 누군가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날들의 연속입니다. 많은 곳에서, 많은 것들을 받아왔지만, 오늘 제 글은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것들, 그리고 장학금이 제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어떤 식으로 힘이 되었는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저와 딸아이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아 놓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학교 근처에서 아이와 살 수 있는 곳을 구하기에는 당연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 가족생활관에 입주하기 위해 메일을 보내고, 행정실을 다녀가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한없이 마음을 졸였습니다. 어쩌면 서울대학교 입학보다도 가족생활동 입주를 더 바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간절했습니다. 저와 아이 학교에 모두 가깝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제가 가진 예산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만약 가족생활관에 입주하지 못했다면 저는 코로나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에 안도하면서 끝까지 서울로 이사를 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가족생활관에 입주를 허가받았고, 아이와 서울에서 머무를 우리의 보금자리를 구했습니다. 집을 열심히 꾸미고 정리하며 행복했고, 지금도 집에 혼자 있을 때 작은 식탁에 앉아 크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하게 장식한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커피를 마시는 게 큰 기쁨입니다. 첫 수업이 있던 그 바로 다음 날 입주 허가를 받고 둘러본 가족생활관이, 제게는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첫 선물이었습니다.

1학기는 저와 아이 모두 새로운 생활과 환경에 적응하면서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방학을 맞이하면서 저는 함께 과제를 수행하던 동기와 함께 평소 감명 깊게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수님께서 2학기부터 조교로 일할 것을 제안해주셨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을 다니기 전에는 아르바이트를, 대학을

다닌 후에는 과외를 하면서 계속해서 일을 해왔는데, 서울에 온 후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많이 배운 수업을 강의하셨던 교수님의 조교로 더 가까워서 뵙고 공부할 수 있었고, 학부 수업을 들어볼 기회도 생긴데다, 남들이 보면 작고 소중한 월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전처럼 아이에게 매달 엄마 월급날이라며 외식도 하고 작은 선물도 사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제게는 매우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끝나갈 무렵, 같은 교수님의 조교인 한 학기 선배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조교 중 한 명이 TA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은 이미 받은 적이 있어 제가 받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몇 차례 얘기가 오고 간 끝에 결국 저는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기쁘게, 사실 조금은 냉큼, 장학금 신청서류를 받아 선배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빠르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학기를 마치면서 그 일을 돌아보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게 TA 장학금은 가족생활관 같은 선물과는 다른 선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수님의 조교가 되었다는 것,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른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선배와 함께 조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 조교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장학금으로 스스로 학비를 낼 수 있다는 것, 이어진 비대면 수업에도 불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연구실에서 더 많은 선배와 동기, 그리고 신입생 친구들을 만났다는 것, 1학기 때는 대면 시험 외에 갈 기회가 없어서 낯설었던 학교에 자주 가게 되면서 소속감이 생겼다는 것 등 제게 장학금은 단순히 학교가 준 선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장학금은 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일찍 아이를 낳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제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그리고 아이에게 좋은 엄마, 훌륭한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공부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제게 장학금을 준 것은 단순히 TA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제 가능성을 믿고 그 노력을 지지해주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제게 새로운 원동력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사랑하는 아이, 제가 좋아하는 공부, 제게 기대를 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눈빛이 제게 힘이 됐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내 학교가 나를 지원하고 응원하며 믿어주는 것, 내 전공의 교수님들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 선배와 동기들이 나에게 해 주는 응원의 말들이 제 안에서 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환경에서, 함께 하면 즐거운 친구들과, 훌륭한 교수님들께 지도를 받으면서 학교의 격려를 받는 느낌은 대학원생에게는 사실 가장 행복한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TA 장학금을 두고 너무 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게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대학을 다니는 것을, 더욱이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것을 생각조차 해볼 수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이 꼭 누군가에게 지금까지의 제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제게는 특별한 의미와 큰 힘이 됩니다.

저에게 장학금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한다면 네가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으니 힘을 내라는 메시지입니다. 학교는 네가 노력하는 것을 알기에 너를 지원한다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알아보고, 신청하고, 그리고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더는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아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꼭 제가 받은 것 이상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글이 끝나가는 지금은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제 장학금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형편은 어떤가요? 저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우수상

서울대학교의 거인들

안응규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모든 사람들은 마음 속에 진리를 탐구하고 싶은 열정의 불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꽃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던 저는 스무 살에 입학한 서울대학교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관정도서관을 자주 찾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정도서관은 많은 특징이 있지만 특히 공간의 다양성이 두드러졌습니다. 친구들과 가볍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그룹스터디룸도 있었고, 혼자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집중을 할 수 있는 열람실도 있었으며, 문서작업을 할 때 좋은 노트북존, 답답할 때면 산책을 하며 기분을 전환하기 알맞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면학 분위기를 사랑하는 저에게는 매일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특별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단순한 ‘행운’으로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관정도서관의 설립 과정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로비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설명은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 외에는 큰 관심이 없던 제게는 ‘도서관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보다 ‘도서관의 어떤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가 더 유의미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가을날 교양 강의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와 도서관 근처를 걷다 관정도서관 외벽에 ‘양두석 홀’이라고 금색으로 크게 써진 간판을 마주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양두석 홀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아마 이곳은 관정도서관이므로 양두석이라는 분이 서울대학교에 이 도서관을 기부했고 그분의 호가 관정일 것이다’라고 답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셔틀버스에서 조금 검색을 해보니 저의 대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정도서관은 서울대학교에 새로운 도서관을 짓기 위해 관정 이종환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에 기부를 하여 짓게 된 도서관이었고, 양두석 হল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기부를 해주신 양두석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붙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제 자신이 부끄러워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이 부끄러움이 단순히 친구에게 아는 척을 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토록 관정도서관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제가 그 이름의 의미조차 몰랐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 도서관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고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는지조차 무관심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점심식사를 위해 들렀던 학생회관은 물론이고 해가 지고나면 밤하늘을 보러가던 벼들골 풍산마당, 동아리 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신앙학술정보관, 심지어 귀여운 고양이들을 보러 가기 위해 들렀던 주차타워도 모두 기부를 통해 지어진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건물들이 건설된 배경을 하나하나 찾아보다 보니 오히려 캠퍼스에서 기부 없이 지어진 건물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 저는 매일매일을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으로 지어진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대학교의 여러 건물들이 기부의 도움을 받아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도 생활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반학기가 넘는 기간 동안 그러한 사실에 대해 무관심했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여러 시설들을 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서울대학교의 건물들이 지어지게 된 배경을 알게 된 이후로는 시설들을 이용할 때마다 ‘특별한 교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존재하는 수많은 건물과 시설들은 단순히 사업적 이해관계에 의해 건설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서울대학교의 정신을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깃들어서 지금까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재단을 설립하고, 기부금을 주고,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은 행정적 절차 그 이상의 정신적인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곱씹을수록 점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며 진리를 찾아 나아가는 저의 자유로운 여정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관정도서관의 정신을 공유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뜻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의 정원에서 바라보는 캠퍼스의 전경도 지금의 모습을 이루기까지 있어왔을 사람들의 노력과 정신을 함께 떠올리니 한층 더 색채가 더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바꾼 위대한 과학자라고 인정하는 아이작 뉴턴은 일전에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문장을 처음 보았을 때 뉴턴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기 보다는 이전의 학자들이 남긴 학문적 업적을 인정하며 그들을 거인이라 칭하며 예우하는 멋진 자세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장을 다시 보니 거인은 단순히 앞서간 학자들의 발자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학문은 학자들의 지식과 글의 전달로만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을 시대를 넘어 이어나가고자 하는 정신과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노력과 실천이 있기에 진리를 추구하는 여정은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정신은 때로는 기부라는 행위를 통해 사라지지 않고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한걸음씩 나아가는 거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 역시 관정 이종환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도서관, 신양문화재단의 고 정석규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신앙학술정보관, 또 이분들의 뜻을 실천하고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분들의 뜻이 모여져 만들어진 서울대학교라는 거대한 거인의 어깨의 위에 올라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거인들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된 특별한 체험은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제 인생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다소 독선적이고 오만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협력적인 활동을 할 때도 다소 어려움이나 마찰이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공감해주는 것을 어려워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거대한 거인과 함께하며 그들의 정신을 은연중에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에 점점 동질감이 들고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때로는 서로 화합하여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성격도 점점 외향적이고 협력적으로 변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인정도 하게 되면서 기부자들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생활에서 힘든 순간들도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특히 공부가 잘 안되거나 성적이 뜻하던대로 나오지 않을 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에 내 자신이 부족하고 앞으로 있을 시련을 이겨내기 힘들 것 같다'란 생각에 좌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면 도서관을 나와 캠퍼스를 천천히 거닐며 건물들과 공간과 시설들을 유심히 보면서 그 뒤에 서있는 거인들을 떠올렸습니다. 몇몇 건물 로비에 적혀있는 기부자들의 명단, 건물의 설립 의도를 읽어보면 그분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건물을 설립하고자 하였는지 그 뜻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용한 사색의 시간들은 거인들에 대한 상상을 구체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긴 산책만큼이나 많은 거인들을 떠올리고 나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용기와

위로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에 큰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대학교의 거인들의 실질적인 도움과 그 속에 담긴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기부라는 것이 단순히 무상으로 누군가를 지원한다고 생각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기부는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에 있지만 하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이상동몽(異床同夢)을 실천해내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개개인에 불과하지만, 하나의 꿈을 꾸고 있는 이상 커다란 거인처럼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그 손을 감싸쥐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진리를 추구하는 모두의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열정을 불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자신만의 꿈을 위해 달려나갈 또 다른 어린 저를 위해 ‘꿈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작지만 따뜻한 손을 내밀어 모두가 거인이 되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제5회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수기 공모전
수상작 소개

장려상

장려상

나태의 끝에서

고 병 기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나는 가난에 허덕이거나 가정의 불화로 힘들어 본 적은 없다. 오히려 누구보다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마침내 성취를 이뤄내는 요즘에는 오히려 접하기 쉬운 영웅적인 이야기를 기대한 분들에게는 심심한 사과를 전한다. 오늘은 평범하고 미숙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2011년, 수험 생활의 마침을 알리는 합격 소식이 전해졌다. 나뉠의 착실함과 성실함이 이끌어 준 합격의 기쁨은 무엇보다 달콤했다. 수많은 축하와 목표했던 대학에 당도했다는 안도감으로 신입생 시절을 보냈다.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는 타이틀, 각지에서 올라온 새로운 친구들과 서울대라는 넓은 울타리 안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가지는 축제는 1년이나 지속됐다. 그때였다. 주변의 한 친구가 부리나케 짐을 싸서 축제의 현장을 떠난 것이다.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오래 쉬었다며 다시 꿈을 향해 달려간다고 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이곳이 종착지가 아니었나?’ 인생의 절반 이상을 쏟아내 얻어낸 학문과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에서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간다니 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반나절 만에 그를 잊었다. 아직 대부분의 무리는 총장 잔디에 등을 붙이고 있었고 굉장한 별종이었나 보라며 웃어넘겨 버렸다. 어느새 대학 생활의 반이 넘는 시간을 보냈고 주위에는 확연하게 줄어든 친구들과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날 지난날의 숙취와 나태만이 남아 있었다.

학교생활은 점점 안 좋아졌다. 고등학생 때 벌어들였던 지식은 바닥을 드러냈고 학점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며 시험 문제의 오류나 수업 방식의 한계를 꼬집는 데만 혈안이었다. 꾸역꾸역 죄수가 노역을 하듯 수업에 참석하는 빈도도 점점 줄어 들어갔다. 나태와 방종으로 점철된 한 해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방학을 맞이해 고향에 내려갔고 부모님의 걱정 어린 충고를 무시하며 집에서 휴식을 즐겼다. 그야말로 폭풍 전야였다. 한 과목의 성적이 뒤틀고 태어나 처음으로 F라는 학점을 보았다.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서울로 뛰쳐 올라갔다. 교수님 방의 문을 두드렸고 태어나 처음 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하다. 기회를 달라. 어떤 말로도 내게 내려진 학점은 바뀌지 않았고 유급 처분이 내려졌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다. 부모님은 말 잘 듣던 착한 아들이 가지고 들어온 성적표에 말을 잇지 못하셨다. 이후 학기가 시작하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부끄럽고 창피했다.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기분이 있다면 그것이 그때의 기분일 것이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는 공상 과학 소설의 이야기를 재현해 보고 싶었다면 가히 어떤 심정인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나는 생애 첫 실패를 하고 만 것이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른다. 학기는 시작됐고 나보다 한 학년을 먼저 진급한 친구들과 이제는 같은 교실에 앉아있는 후배들의 모습을 마주했다. 철치부심하며 준비했던 학기의 시작은 예상외의 고행길이었다. 집중이 쉽지 않았고 오랜 시간 놓았던 펜은 너무나도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부모님께 학비를 받을 염치가 없어 수업이 끝나면 기숙사의 편의점으로 향했다. 알람을 스무 개씩 맞추게 되었고 밤을 수시로 새기도 했다. 자연스레 게임을 그만하게 됐다. 친구들과의 약속 하나 잡지 못했다. 단 한 번의 수업이라도 늦는다면 지금의 각오와 약속들이 깨질 것 같은 강박증에 시달렸다. 불면증을 겪었고 때로는 별것 아닌 영화 한 장면에 울기도 했다.

그럼에도 시간은 덧없이 흐른다. 다행히 성적은 나에게 웃어주었다. 수강한 모든 과목에서 A0 학점을 받았다. 재수강 시 A+를 받지 못한다는 학교 규정을 처음 알았다. 성적에 찍혀있는 4.0이라는 숫자에 크게 웃지 못했다. 나는 아직 벌을 받는 중이고 그저 모범수로 선정됐다는 의미 같았다. 학과 내에서도 ‘유급’이라는 단어는 주홍 글씨가 되어 나를 쫓아다녔고 내게는 새로운 목표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도 괜찮은지에 대한 답도 주어지지 않았다.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전화로 조심스레 학점에 관한 얘기를 건넸지만 반응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 한다. 아직 방심하면 안 된다. 더더욱 잠은 오지 않았다.

2학기 시작 전, 등록금을 내야 할 시기가 왔다. 그쯤이었다. 학교에서 단과대학 성적 우수 장학금이 나온 것이다. 지난 학기에 비해 성적이 많이 향상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라고 했다. 통장에 적혀있는 100만원 남짓한 금액에 길을 잃은 아이처럼 눈물을 쏟아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표를 끊고 봉투에 현금 100만원을 담았다. 그날은 참 많이 웃고 울고 서로를 안아주었다. 나의 마음속 깊이 글로 쓰지 않아도 꺾꺾 눌러 쓰여있던 이 이야기를 남들과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상처투성이에 방어기제로 둘러싸인 글의 활자를 썼다 지웠다 몇 날 밤을 반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얘기를 꼭 전하고 싶었다.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어디를 향해야 할지 모르는 동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주변에서는 그저 철없는 대학생, 방황하는 쓸모없는 시간이라 평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시간을 겪으며 성장했다. 일류 작가는 일필휘지로 모든 작품을 써 내려갈 것 같지만 그들에게도 상상치 못할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견뎌낸 자만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당시의 내게 주어진 장학금은 학교가 선물해 준 작은 토닥임이었다. 우리는 아직 너를 믿는다고,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다. 장학금은 가난에 지급되는 구호품이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게는 방황의 끝에서 만난 마지막 이정표였다. 나는 학교의 도움으로 지난한 나태의 늪을 벗어날 수 있었다. 부족한 이 글이 긴 여정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태의 끝에서 짧은 소회를 남기며.

장려상

가장은 항상 아쉬울 수밖에 없다

김 건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어렸을 적 행복했던 기억을 되돌아보자면 한 가지 떠오르는 풍경이 있다. 엄마, 아빠, 누나, 여동생과 함께 서로 다리에 다리를 끼우고는 ‘척척박사님 알아맞혀 보세요’라는 놀이를 하던 모습이다. 기억 속에 막내가 보이지 않는 걸 보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나 보다. 당시로서는 내가 ‘척척박사’가 되기 위해 이 길을 걸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텐데, 지금 돌이켜 보면 오묘하다.

재미있는 것은, 그 놀이를 하던 방과, 이불을 덮고 자던 방과, 아침에 아빠가 오디오로 영어 노래 테이프를 틀고 일어나라고 노래를 부르던 방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이다. 기억 속을 돌아다녀도 그 외에는 다른 방이 없다. 단칸방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본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거울로 보는 듯 나와 똑 닮은 아들도 단칸방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 나의 아들, 나의 혈육. 이 아이는 아버지가 매인 굴레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나 보다.

처음으로 눈을 뜨고 나서 열다섯 달을 채우도록 단칸방에서만 살아온 나의 아들. 그 이름을 원이라 하였는데 근원 原 자를 썼다. 그 자신의 근원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으나, 어쩌면 한동안은 원룸의 One 자에 더 가깝지 않았는가 싶다. 거기다가 밖에는 병마가 돌고 있었다. 천식이라는 다른 병마 때문에 생명을 날다가 생명을 내어놓을 뻔한 어미와 그 아들은 꿈쩍없이 안전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방범용 철창에 좁디좁은 창을 내다보노라면 갇혀 있는 어미 마음은 천식 발작이 일어난 허파처럼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겠다. 발 디딜 자리가 없어서였을까, 원이는 나이가 차도록 걷지를 못했다. 그래도 넘치는 힘을 발산하고 싶은지, 앉았다 일어섰다 하며 노는 모습이 지각해서 혼나는 중학생 때의 내 모양 같다.

내 어릴 적 그 단칸방 풍경이 행복했던 기억인 만큼 원이도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까. 아마도 그때 다리를 서로 모으고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먹지’를 부르던 때의 기억이 뇌리에 박힌 것은 아버가 집에 있는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원이에게는 아마도 엄마와 투닥대는 일상을 잊고, 아버가 새벽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다. 아마도 그 기억 속에서 아버의 얼굴은 새하얀 마스크에 가려 보이지 않으리라.

성장통. 웬다. 아프다는 것은 자란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값진 경험이 바로 가난이다. 나는 그 귀한 선물을 받았다. 원이도 문을 쾅 닫고 방에 틀어박힐 시기를 지나게 된다면 그 의미를 어렵פות이 알아가게 되겠지.

하지만 가난은 비싼 것이다. 우리 세 식구는 자유라는 등록금을 지불하고 가난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다. 조금은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찾아오는 행운은 더없이 반갑다. 이 길에 들어설 때 그랬던 멋진 꿈은 이미 구름처럼 손에 잡히질 않고, 오랜 노력에도 헛바퀴를 밟던 때였다. 어떻게 지내나는 염려와 안부 인사에 상처가 덧나고 굶아, 나를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사랑하는 이들이 꿈속에서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괴로운 때였다.

그 때였다. 기초학문에 힘쓰는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 당연히 나는 해당하지 않는다. 마감까지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휘갈기듯 써서 지원했다.

붙었다. 무슨 이번이었을까. 무슨 행운이었을까.

첫 장학금을 받고는 고이 모셨다. 두 번째를 받고 그동안 모은 것들과 합쳐

옆집으로 이사했다. 여전히 월세다. 하지만 이제는 단칸방이 아니라 두칸방이다.

이사한 날부터 원이는 걸었다. 걷는 모습을 보며 어안이 빙빙했다. 걷는 게 즐거운 모양이다. 지금도 오르막길부터 계단까지 혼자 직접 걸어내려고 한다.

이사한 날부터 아내는 웃었다. 철창이 넓어져서 하늘이 보인다고 기뻐했다. 이제는 잠자리 위에서 밥을 먹지 않아서 기쁘다고 한다. 이제는 늦은 밤 노트북 불빛에 원이가 깨지 않아서 기쁘다고 한다. 이제는 청소기를 돌릴 바닥이 있어서 기쁘다고 한다.

내 생각에, 가난은 귀중한 수업이 맞다. 원이는 눈을 굴릴 즈음부터 머리말에 책이 놓여 있었다. 거기 말고 마땅히 둘 곳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책을 좋아한다. 귀중한 수업을 들은 덕에 얻은 가치 있는 자산이다. 그러나 욕심 많은 가장은 아쉬움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다. 수업을 충분히 들었다면 졸업해야 하지 않겠는가.

장학금(獎學金)은 학문을 장려(獎勵)하는 돈이다. 이미 뛰어난 실적을 이루었다고 주는 성과급이 아니다. ‘장려’가 장학금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다행히도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것 같다. 가장으로서 그 많은 아쉬움 중 몇몇이 해소되고, 새로운 욕심이 아쉬움으로 익어가면서, 마음을 몇 개 더 먹었다. 더 꾸준하기로, 더 악착같기로, 더 간절하기로.

언젠가 내가 가난을 졸업하게 되었을 때, 나와 같이 자유를 치르고 가난을 수강하는 후배들을 만나게 되는 때를 그려 본다. 그때는 내가 그들의 아쉬운 한숨을 듣고, 별이 드는 방법창을 조금 더 열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장려상

21세기의 패러데이

김 종 찬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2020년은 패러데이, 맥스웰 등 현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물리학자들이 탄생한 지 각각 230주년, 19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하신 민경훈 선배님께서 이 해를 기념하여 전기정보공학부 학생들에게 장학금 선발 기회라는 큰 선물을 주셨고, 저는 여기에 선발되어 올 한 해 부족함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억지스럽게도 보이는 230주년, 190주년을 기념하면서 민경훈 선배님께서 저를 비롯한 수혜 학생들에게 시사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나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궁금증은 선배님을 직접 만나 뵙고 한 끼 식사를 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선배님과의 대화를 통해 느낀 바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의 짧은 글을 씁니다.

민경훈 선배님은 훌륭한 부모님을 밑에서 자라 나름대로 성공가도를 달리신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뒤를 이어 수년째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선배님이 장학금을 수여할 학과를 선정하는 기준이 꽤나 독특하면서도 재미있었습니다. 선배님이 졸업하신 법대를 시작으로, 피카소를 기념하며 서양미술학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베풀고, 헨델을 기념하며 음대 학생들에게 그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매년 수혜 학과가 하나 둘씩 늘다가 올해는 패러데이를 비롯한 전기 문명의 창시자들을 기념하여 전기과에까지 수혜의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선배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점은 민경훈 선배님은 단순히 위인의 탄생 햇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력을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계시고, 나름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법대를 졸업하신 선배님이라 물리학자들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으리라 여겼던 저의 짐작은 가볍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본인의 분야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셨으면서 사회 문화를 넘어 과학의 영역까지도 늘 관심을 두고 연배가 있으셨음에도 지식의 문을 항상 열어 두시는 모습에 저 역시 큰 감명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인류 역사의 큰 흐름을 타고 내려오며,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부터 러시아 혁명까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던 선배님은 이야기의 끝에서 저희에게 간결하지만 엄중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후대의 학생들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 때서야 비로소 저는 선배님이 이번 장학금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경훈 선배님의 WIN 장학금은 학업이 어려운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아니었습니다. 그 분은 본인이 일평생 길러 온 세상에 대한 통찰력, 분야를 막론하는 폭넓은 사고를 장학금 수혜 학생들 또한 배양하기를 원하셨고, 다시 우리를 통해 후배들에게도 지속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길지 않은 식사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이 몰아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역시 어렸을 적 한 때 고고학자가 꿈이었을 정도로 역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인이 되고 대학원생이 되다 보니 제 전공 분야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차츰 관심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제가 전공하고 있는 전기, 컴퓨터 학문이 단순한 학문이 아닌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흐름이라는 인식도 갖게 되었고, 더 큰 시야를 가지고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분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230여년 전 탄생한 패러데이는 본인이 발견한 전기적인 현상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 그 원리를 밝혀 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전기 현상은 발전기의 원리가 되어 현대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전기를 날마다 생산하고 있으며, 인류는 그 무한한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러데이가 진정으로 칭송 받아야 하는 이유는 과학에 대한 관심을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설파하는 노력을 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그 대중의 범위에는 돈 없고 가난한 학생들도 결코 빠지지 않았습니다. 패러데이가 직접 연사로 나섰던 크리스마스 과학 특강은 푼돈의 입장료만 받는, 모두에게 열린 과학 강연이었고, 그 덕분에 사회 각계 각층의 많은 청년들이 과학자의 길로 들어서서 과학사에 더 많은 이바지를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패러데이가 처음 시작한 크리스마스 과학 특강은 패러데이 사후에도 계속되어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오늘날에도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강연이 되었습니다. 민경훈 선생님이 패러데이를 기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패러데이의 뒤를 이을 것을 자처하셨으며, 저희에게도 동참하기를 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모두가 각자 본인의 분야에서는 특출 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패러데이와 민경훈 선생님은 학생들이 이 정도 선에서 그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인 분야에서의 패러데이가 되어 후대의 더 많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기를 바라신 것 입니다. 단순히 가난한 학생들 위한 장학금 정도였다면, 저 역시 돈만 받고 어떠한 것도 느끼지 못한 채 다시 제 분야에 집중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번 장학금 행사를 통해 깨달은 바가 적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 학업에 정진하면서도 선생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바를 잊지 않도록 다짐하였습니다.

장학금은 당연하게도 이번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는 데에 쓰였습니다. 선생님이 기부하신 돈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서울대학교 등록금으로 쓰였습니다. 돈은 그 자리에서 돌고 돌지라도 한 사람이 가진 생각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서울대생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은 단순히 이 학교가 좋은 학교이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학교이기 때문이 아닌, 훌륭한 사고를 구성원들에게 전파하고 싶어 하시는 선배님들과 동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입니다. 이미 큰 부를 거머쥔 선배님 입장에서 이러한 장학금은 후배들과 이야기 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공대에 들어올 때는 오로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입학했습니다. 순수 학문에 관심이 있었다면 공대가 아닌 자연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만금을 거머쥔다고 해도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체로써 성장하지 못했다면, 돈은 오히려 독이 되어 불행을 가져올 지 모릅니다. 선배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게 된 두번째 깨달음이 있다면, 바로 돈을 더 크고 훌륭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저 역시 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뒤에 부를 얻게 된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인류 역사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 끼의 식사 자리라도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선배님이 저에게 맡기신 책무를 다하는 길이고, 저 역시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멀지 않은 훗날 우리 학교 발전 기금에 제 이름으로 기탁하는 날을 소원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장려상

미래의 동료가 될 후배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진 영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저는 2013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생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학생으로서 학교 교정 곳곳을 누볐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의 대학 입학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가, 진로가 변경되어 일반계 고등학교로 학교를 옮기고 대학 진학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국가 장학금과 외부 장학 재단의 지원으로 등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록금만 해결된다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근로 장학생으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필요하였고, 특히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숙사에 거주했던 저는 일주일에 5만 원 남짓으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기숙사 편의점에서 2+1 행사를 하는 우유를 구매했었고, 점심과 저녁을 학교 식당에서 먹으며 ‘오늘 점심에 특식을 먹으면 저녁은 메뉴와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것을 먹어야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종종 학과부터 동아리까지 다양한 모임 자리가 있었는데 이마저도 제 생활비에 맞춰서 가끔씩 얼굴을 비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활했을까 싶지만 스무 살이었던 저는 제 의지로 진로를 바꿔서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버텨서 빨리 졸업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장학금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인재 장학금’입니다. 등록금 등의 제반 비용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생활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마련인데 이를 위해 생활비를 월정으로 지원해주는 교내 장학금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학부 1학년 2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누군가에게는 작을 수 있지만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점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제 점심으로 특식을 먹고 싶으면 한 번쯤은 고민 없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었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여유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저는 경제적 고민에서 벗어나 학업에 정진할 수 있었고 8학기 만에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 졸업을 하며 내가 스스로의 인생을 영위할 수는 어른이 된다면 조금이나마 받은 것을 돌려주자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 이후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많은 고민과 좌절이 있었고 대학을 졸업한 지 5년이 된 지금 저는 불안정한 어른으로 성장해있습니다. 주경야독하여 낮에는 직업인으로서 근무를 하고 퇴근 후 밤에는 제가 꿈꾸었던 진로를 위해 여전히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대학을 졸업하며 다짐했던 나는 언제쯤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국가와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어른이 된다면 꼭 받은 만큼 기부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이렇게 미루다가는 영영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소액이지만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기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타인에게 기부한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액수이지만 그 돈이 모여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에 첫 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저는 아직 미약한 선배이지만 누구보다도 생활이 어려울 때 느끼는 당혹감과 무력감을 잘 알기에, 저와 함께 곧 사회에 나와 세상을 이끌어갈

동료들을 응원한다는 저의 작은 지지이자 행동이었습니다.

최근 서류를 제출할 일이 있어 오랜만에 마이스누 포털에 접속하였다가 장학금 수혜 내역서가 있는 것을 보고 발급을 받아봤습니다. 8학기 동안 국가와 학교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4천만 원이 넘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여 많은 나눔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오늘도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후배님들을 학교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려상

또 하나의 열매를 기다리며

이진규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에 받았던 관정 이종환 장학금과 그 계기로 시작할 수 있었던 나눔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정 이종환 장학금, 꼭 넘고 싶었던 높은 산

포항공대 학부 3학년이던 저는 GPA 4.06/4.3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에 차 있었기 때문에, 꽤 높은 지원 기준 (GPA 3.8/4.3)을 요구하는 관정 장학금 공고를 보고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같은 학과에서 가장 높은 학점을 받은 동기도 지원한 탓에, 저는 면접 심사를 받을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노력하면 이를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믿어왔던 당시의 저는 이 일로 인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나중에 대학원 과정 중에 다시 지원해서 꼭 정복하고 말리라는 다짐을 남겼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저는 포항공대 학부 졸업 이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진학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학부 졸업 두 달 전, 낙상으로 인한 측두골 골절 및 경막외 출혈로 12시간 동안 방치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7시간의 뇌수술과 3일간의 혼수상태 이후, 오른쪽 눈을 뜰 수 없었고 왼쪽 팔다리를 통제하기 어려웠으며 유아수준의 감정조절능력을 가진 제 모습을 마주했기에 대학원 입학은 물론, 모든 미래가 절망적이었습니다. 1년간 매일 3시간씩 꾸준한 재활운동으로 운동신경을 회복했고, 피아노 치기를 통해 말초신경 조작을 연습했으며, 교회

성가대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어눌한 발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추구해오던 세상에서의 성공을 좇느라 관계에 소홀했던 제 자신이 뼈저리게 비참했고 후회되어, 기적적으로 살게 된 두 번째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간절히 고민했습니다. 병상에서 느꼈던 제 자신의 변화와 감정을 병중 일기로 매주 기록했고,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5년간 약 260회에 걸쳐 일기를 작성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받은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통해 모든 기능들이 온전히 돌아오고, 완벽하게 회복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삶의 마지막에 유일하게 남는 것은 사랑했던 마음뿐임을 깨닫고, 저보다 힘든 이들을 손잡아주고 위로하기 위해 ‘과거의 헛된 것을 좇던 1진규’가 죽고 ‘새 인생을 빌린 현재의 이진규’가 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매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재입학한 이후에도 간절하고 치열하게 연구하여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를 개발하고자 연구에 완전히 매진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잊고 지냈던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관정 장학생 모집 공고를 보았고 학부 때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지원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는 달리 감사하게 1차 서류 전형에 통과하여 2차 면접 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도착한 면접장에는 그룹면접에 함께 들어갈 서울대 출신의 다른 학과 대학원생 3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순서를 기다리면서 긴장도 풀겸 들어가자마자 인사 대신 함께 외칠 구호와 율동을 함께 만들고 연습했습니다. 차례가 되어 시작된 면접에서 귀여운 구호를 외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이후, 한 면접관님께서 ‘이진규 학생은 최근에 큰 사고가 있었네요?’라고 질문하셨고 제 사고에 대해 자세히 듣길 원하셨습니다. 저의 상세한 답변 이후 다음 면접관님께서 ‘그 사건 이후로 생각이나 가치관이 달라진 부분이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셨고, 이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또 다른 면접관님께서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셨고 준비해온 답변을 말씀드리자 시간이 다 되었고, 결국 4명에게 주어진 면접시간 동안 제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은 채 면접이 끝났습니다.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어 느끼는 행복

약 한 달 뒤에 있을 면접 발표를 기다리기까지 솔직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게 되면 부모님께 드릴 선물과 그동안 비싸서 가지 못했던 맛있는 식당들, 친구들에게 한턱내는 그림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덜컥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했던 학부 때 오로지 내 힘만으로 노력해서 쟁취하고 싶었던 이 장학금을 대학원 때에는 큰 사고로부터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 덕분에 받게 된 것 같아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주어진 것, 잠시 맡아 두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 개인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의미 있게 사용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10분의 1을 제하여 헌금하고, 남은 금액에서 장학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등록금을 제하고도 학기당 백만원 정도의 돈이 남았습니다. 비록 학생이었던 저에게는 큰돈이었지만,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던 순간에 나보다 힘든 이들의 손을 잡아 주기로 다짐했던 결심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이혼한 한 부모 가정의 두 아이들, 하진, 희진이를 알게 되었고, 충분하지 않은 돈이지만 그들을 2년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하진이, 희진이를 처음 만나기 전, 저는 그들의 단순한 경제적 후원자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단지 한발 앞서 있기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이자 선배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날, 아이들과 어머니께 세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2년간 한달에 한 번씩 나와 만나면서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도움을 나에게 받을 것. 둘째는 매달 만날 때 올바른 신앙 안에서 함께 교제할 것. 세번째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저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이 순간을 기억하고 또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 매달 두아이들과 만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분주한 대학원 생활 속에서 내가 본래 추구했던 방향성과 초심을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장학금을 받은 후 눈에 보이는 큰 유익은 없더라도, 성장해가는 아이들을 지켜 볼 수 있고, 또 그들이 새로운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어 맺어질 또 다른 열매들을 기대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약속했던 2년이 지나 두 아이들과 지속적인 만남은 유지할 수 없게 되었지만, 요즘도 간간이 연락하며 지내곤 합니다. 당시에 느꼈던 마음을 지속해 나가고자 생활비를 조금씩 덜어서 한 기부단체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아이를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주기적으로 편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글을 맺으며, 따뜻한 당신에게 드리는 도전

실리콘 밸리의 성공 신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pay it forward’ 문화를 말하곤 합니다. 이는, 성공한 창업자들이 뒤에 오는 후배 창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문화를 뜻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의 원동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족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저였지만, 누군가의 값없는 도움을 통해 선함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고, 더 멀리 퍼져갈 선한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는 행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많은 자원을 제공받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열매를 기다리고 있나요?



서울대학교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940동) 2층

전화 02-871-8004 | 팩스 02-872-4149 | 이메일 snuf@snu.ac.kr | 홈페이지 www.snu.or.kr